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< 2. NRA 사용전검사 종료증 교부 >

□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, 어제(7.5)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(NRA)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,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.

□ 이에, NRA는 내일(7.7)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며,

○ NRA의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.

□ 향후,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일본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를 판별하고,

○ 올해 여름정을 목표로,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

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,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 3. 우리 정부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 >

-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,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고,
 - 내일(7.7)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
- 지난 2년여간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,
 - 관계부처 TF의 장을 맡고 계신 극조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하셨던 원안위원장,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들께서 함께할 계획입니다.
- 최근 며칠 우리 측 검토보고서 발표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, 마무리 시점 특징이 어려워 선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7월 6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2건 (금년 누적, 4,863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우럭(조피볼락) 3건, 참돔 3건, 오징어 2건, 고등어 2건, 피랴고등 2건 등이었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6건 (금년 누적, 2,641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□ ‘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’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동해시 소재 위판장의 삼치 1건을 조사한 결과, 적합이었습니다.

-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, 85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- 현재 13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- 7월 4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(금년 누적, 2,913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< 3. 천일염 공급 및 정부 비축 관련 >

- 다음으로 천일염 수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7월 4일 브리핑에서 6월과 7월에 공급 가능한 물량은 농협 보유물량 2만톤과 햇소금 10만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
- 먼저 농협 보유물량 2만톤 판매 상황을 말씀드리면, 어제, 7월 5일 기준 약 6,500톤이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공급되었으며, 7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900여톤이 추가로 전국 하나로마트에 공급되었습니다.

- 헛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되고 있으며,
7월 5일 기준 약 6만톤이 공급되었습니다.
-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계속 운영하여
공급 물량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점검하고
특히, 유통과정에서 재고량을 지나치게 쌓아두는
업체는 철저히 점검·단속하고 있습니다.
-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은
현재 전국 마트 180여개소와 전국 전통시장 18개소에서
7월 11일까지 판매 예정이며,
7월 5일 기준으로 276톤이 방출되었습니다.
- 7월 4일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
정부는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7월 11일 이후에도
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천일염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. 국민들께서는
천일염을 급히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
다시 한번 드립니다.

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

[생산에서 소비까지]

- 브리퍼 :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권오상입니다.

< 2.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>

☐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① 생산과 ② 유통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.

① 생산단계 안전관리

☐ 먼저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.

○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양식하거나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에 대하여 유통 이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, 해양수산부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과학원,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.

- 생산단계에서는 '11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만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- '23년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전품종인 약 180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,000건을 검사할 계획이며, 현재 4,863건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부 적합입니다.
- 아울러 민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9,000건 이상의 모니터링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며, 검사장비도 현재 29대에서 64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② 유통단계 안전관리

□ 다음은 유통단계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.

- 유통단계 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, 시장 등에서의 검사를 의미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.
- 식약처는 매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·도가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새우, 오징어, 고등어, 조기, 갈치 등에 대해서 마트, 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을 꼼꼼히 수거검사 하고 있습니다.

-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, 매우 고르게 분쇄하고,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30분, 동물용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시간인 2시간 47분*(1만초)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합니다.

* 기준 : ^{131}I (요오드) 및 $^{134+137}\text{Cs}$ (세슘) 100Bq/kg 이하, 검출한계 : 0.2 ~ 0.3Bq/kg

- '22년에는 5,200건, '1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4만 6천 건의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,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금년도에 확대하여 실시 할 것입니다.

- 이러한 국내 수산물 검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시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

-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.